

공명의 미학: 코울리지의 “생각 속의 리듬”

황 병 훈

차 례

I. 머리말
II. 올림 유발과 감흥 전달
III. 바람의 송고성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이 감각적 데이터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여겼던 감각주의자들이 주장한 이론에 많은 역사가들과 비평가들이 주목해왔다. 비평가들은 하틀리(David Hartley)가 주장했던 하프의 메커니즘처럼, 그리고 코울리지(S. T. Coleridge)가 관념론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자신의 시를 통해서 묘사했던 인간 정신의 수동성에 관심을 두었다(Jitte 128-29). 그러나 하프와 인간 정신 작용 사이의 유사성을 유추해 보는 것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와 인간의 정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리처드슨(Richardson)은 낭만주의 기간이 심리학과 신경학 등, 두뇌와 신경 체계에 관한 이론과 여러 견해들이 대두된 시기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Richardson *British Romanticism* 1-2). 이러한 주장이 있기 전까지는 창조적 정신력을 통해서 물질세계와 육체를 초월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낭만주의와 그 문학에 관한 지배적인 정의였다. 그러나 과거의 접근 방법과는 달리, 최근의 비평가들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육체성에 관심을 보인다(Richardson *Literature Compass* 14). 이 논문에서는 낭만주의 시기의 코울리지의 시와 인간의 정신 작용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러한 유물론적 기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인식 과정에 있어서, 육체의 역할에 대해 크레리(Jonathan Crary)가 주목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에올리안 하프가 인간의 정신 작용에 관한 음악적 모델이며, 이 모델은 육체, 특히 두뇌의 신경 체계와 외부의 자극 모두에서 감흥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Crary 16). 「에올리안 하프」(“The Aeolian Harp”)와 「낙담: 송가」(“Dejection: An Ode”)는 하틀리의 『인간과 그의 사상, 의무, 기대에 관한 고찰』(*Observations on Man, His Frame, His Duty, and His Expectations*)[이후 『인간고찰』로 표기함]에서 논의된 올림과 감흥의 미학을 자세히 보여주는 코울리지의 시들이다. 코울리지가 『문학평전』(*Biographia Literaria*)에서 밝힌 바 있듯이, 1796년에 자신의 아들을 하틀리라고 칭하면서, 「에올리안 하프」를 썼던

때는 이미 스스로가 하틀리와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나 다름 없었다(『문학평전』 250).¹⁾ 『문학평전』에서 그는 연상주의라는 것은 의지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정신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67). 왜냐하면, 연상주의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수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상주의에 관한 코울리지의 주장은 낭만주의의 창조적 정신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기계적인 체계로써의 하틀리의 이론적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하틀리가 코울리지를 비롯하여 다른 작가들에게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휠러(Katherine Wheeler)는 「에올리안 하프」에 나오는 하프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연상주의와 연관된 기계적 사고, 결정론, 필연성을 표현한다”(3)고도 볼 수 있지만, 「에올리안 하프」가 출판되기 이전부터 코울리지는 이미 하틀리의 체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Wheeler 3-4). 그녀는 정신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영향력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며 독창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코울리지의 후반부의 시들에 영향을 준 유기체론과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3). 크리스텐슨(Jerome Christensen)은 코울리지가 한동안 하틀리의 글들을 해석하면서, 그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결국 하틀리의 연상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Rylance 50-51).

이 논문에서는 인간 감수성의 기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에올리안 하프를 인간 정신의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8세기 말 이전까지는 인간의 신경은 텅 비어있는 것으로써 야성적 충동이 그 신경을 통해 흘러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8세기 말부터는 인간의 신경이 악기의 현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McFarland 168-70). 18세기 중반에 하틀리를 비롯하여 철학자와 해부학자, 신경학자들은 신경의 울림을 통해서 신체의 감흥이 두뇌에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대기의 울림을 소리로 전환시키는 기계인 에올리안 하프를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설명 모델로 간주했다.

현악기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반영해주는 이성과 질서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반해, 관악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신적 혼란과 신체적 혼란이라는 위협적 맥락과 관련되어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른 현악기들처럼 하프는 지리멸렬한 신경들로 인해 야기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에 현악기이면서도 관악기인 에올리안 하프는 한편으로 위안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주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진 악기로 인식되었다(Gouk 15). (1795년에 처음 출판된) 코울리지의 「에올리안 하프」에 묘사된 하나의 은유로써의 에올리안 하프가 시인의 인식과 창조력 형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시인의 내적 울림과 외적 울림에 대한 하틀리의 유물론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려고 한다.

1) 이후 코울리지는 1817년판 『문학평전』에서처럼 하틀리에 대해 폭넓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II. 율림 유발과 감흥 전달

에올리안 하프는 1748년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의 시집인 『나태의 성』(*The Castle of Indolence*)에서 처음 묘사되었는데, 여기에서 하프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신비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그려졌다. 바람에 흔들린 하프의 현에서 나는 소리는 “미약한 가슴을 잠재우고 편안하게 해주며, 우울한 정신을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다”(Hankins & Silverman 86). 18세기 말쯤에는 소설에서부터 음향학을 분석하는 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들에 하프의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 악기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는 인간의 두뇌 신경은 텅 비어 있는 통 모양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악기의 현과 같은 물질이라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경 섬유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신경의 이미지로 악기의 현이 사용되자 대중들은 신경의 떨리는 특성에 대한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Clarke 133). 신경이 현과 같다는 생각에 대해 하틀리는 현의 경우에 떨리는 것은 현 그 자체이지만, 율림이 신경을 따라 이동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경과 현을 구분하였다. 그는 “신경 자체가 악기의 현처럼 떨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Hartley 11-12)고 생각했다. 그는 신경이 떨리고 난 이후에 바뀐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떨림이 있기 전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써 현을 이용하였다(62). 마일즈(Robert Miles) 또한 “신경이란 개개인에게 현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진동하는 기계”(Miles 49)라고 제시한 바 있다. 에올리안 하프는 자아란 개념 설정을 위한 모델로써 감각의 메커니즘과 연관된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18세기 말부터 이 악기의 현은 시인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감수성을 위한 모델로도 사용되었다.

에올리안 하프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악기가 바람에 의해 움직이며 자연에 반응하고 “자연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킨스(Thomas Hankins)와 실버만(Robert Silverman)은 17세기의 자연 철학자들이 제시한 일련의 악기들을 연구해왔다. 그 악기들 중에서도 “에올리안 하프는 자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반응하면서 자연에 경청하는 민감한 악기로 설명된다. 이 악기의 매력은 거의 신비적 수준에 가깝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이 악기가 없었더라면 인식되지 못했을 자연의 경이감과 조화를 만들어낸다”(Hankins & Silverman 110)고 전해진다. 이 악기의 신비성은 이 악기가 가진 민감도와 반향적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현은 사람들의 감각에 자연의 음악을 전해주며 그들로부터 일종의 자극 반응을 유도한다.

「에올리안 하프」의 전반부에서 하프의 소리에 시인이 민감하게 느낀다는 사실은 시인 자신이 하프와 혼연일치가 되었음을 내포한다. 이 악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민감도

란 하프 현의 진동이 인간의 감각을 흥분시키며 전달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감각들이 함께 조율된다는 점이다. 이 시의 첫 연에는 촉각과 시각, 후각, 특히 미각의 감각들이 묘사되어 있다. 사라(Sara)는 집 옆에 앉아서, 꽃과 구름, 별과 흰색의 형체들, 빛 등을 바라보함께 콩밭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바다가 “조용히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달콤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볼”(「에올리안 하프」 1-11, 27-8)은 시인의 팔에 기대어 있다. “부드럽게 떠오르는” 하프 소리의 유연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바다의 파도 소리는 “위로 가라앉고 솟아오른다”(20). 이 파도 물결은 소리의 떨리는 특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 새의 움직임 속에서도 이와 흡사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멜로디가 꿀을 떨어뜨리는 꽃들 주위로,
천국의 새들처럼, 발 없이 야생 그대로,
혜에 앉지도 앉고서, 길들지 않은 날개로 공중에 떠돌며 멈추지 않네!

Melodies round honey-dropping flowers,
Footless and wild, like birds of Paradise,
Nor pause, nor perch, hovering on untamed wing!(“The Aeolian Harp” 24-6)

소리의 유동성은 새의 깃털로 구체화되어 그려져 있다.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멈춤 없이 공중선회를 하는 새의 날개의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소리의 울림은 더욱 증폭되는 듯하다.

태양에서부터 저녁 별로 빛이 바뀌게 되자, “소리 속에 빛, 빛 속에 소리 같은 힘”(「에올리안 하프」 29)의 묘사에서처럼 소리와 광경이 상호 교차된다. 소리와 빛의 상호 유사성은 17세기의 자연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하틀리에 와서도 주목을 받았다(Abrams *Correspondent Breeze* 160-61). 하틀리와 프리스틀리(Priestley)는 “공기의 서로 다른 울림이 서로 다른 소리를 자극하듯이, 상이한 광선들은 서로 다른 크기만큼의 울림을 자극한다”는 뉴턴의 가정을 이용하였다(Priestley *History* 782). 빛에도 진동이 있다는 생각은 “바다의 파도와 그 소리,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빛의 파동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이 아닌 사방으로 확대되어가는 지식에 대한 유추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Priestley *Experiments* xxiii). 모든 감각들에서부터 신경의 진동을 통해 연상 및 지적 사고가 형성된다(114). 이러한 방식으로 「에올리안 하프」에 나오는 바다의 파도와 퍼덕이는 새의 날개, 소리와 빛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인의 신경이 떨리면서 정신 활동이 일어난다(「에올리안 하프」 30). 생각 속에 리듬은 진동을 유발한다. 이것은 감각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진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하틀리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²⁾

2) “의사들과 생리학자들이 제안했듯이, 감각은 효율적으로 정신에 전달되기 때문에, 생각을 유발하는 힘과 연상을 통해 생각을 만들어 내는 일에는 신체적 원인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진동은 다른 어떤 움직임보다도 감각의 본질에 더 부합

“모든 생각 속에 리듬”이라는 설명에는 진동으로 인해 생각이 야기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울림이 생각 안에 들어 있으며 심지어는 생각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틀리의 이론에 부합한다. 진동과 생각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코울리지가 1794년 12월 사우디(Robert Southey)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나는 완벽한 필연론자이다. 그리고 하틀리만큼이나 그 주제를 잘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하틀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의 육체성을 믿는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움직임이다”(Coleridge *Collected Letters* 137)라고 코울리지는 밝힌 바 있다. 「에올리안 하프」에서는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주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시인과 그가 위치하고 있는 자연 세계와의 구분이 없어진다. 예민한 시적 화자는 그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 즉 생각의 물리적 현상을 통해 진동하는 울림, 그 자체가 된다. 다음의 시행들에서처럼 생각과 환상은 빛의 율동적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다이아몬드처럼, 햇빛이 바다 위에서 춤추고,
고요한 생각이 고요 위에서 춤을 추며;
까닭 없고 구속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차서
바로 이 실체인 류트 위로 부풀고 펄럭이는
무작위 질풍처럼 난폭하고 다양하듯이!
수많은 쓸데없는, 스쳐가는 환상들이
나의 나태하며 수동적인 두뇌를 관통해가네.

The sunbeams dance, like diamonds, on the main,
And tranquil muse upon tranquility;
Full many a thought uncalled and undetained,
And many idle flitting phantasies,
Traverse my indolent and passive brain,
As wild and various as the random gales
That swell and flutter on this subject lute! (38-44)

시에 나오는 소리가 생각 자체의 리듬의 소리라는 것이 암시되면서, 운율과 반복, 두음 맞추기가 이루어져 있다. “가득한 많은 생각들”과 “한가로이 오가는 수많은 환상들”이 시인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다. 코울리지의 작품에 “감수성의 시대”(Age of Sensibility)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커(George Dekker)는 「에올리안 하프」에서 하프는 “생각과 느낌, 감각이 유입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은유”(Dekker 114)라고 밝힌바 있다. 데커는 하프의 수동성을 증명하지만, 오히려 하프는 민감하면서도 울림이 있고, 울림을 받으면서도 그 울림을 전달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

하기 때문에, 생각을 유발하는 힘과 연상을 통해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Hartley *Observations on Man* 72).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수동성과 능동성이라는 양면성에 대해 아브라함스(M. H. Abrams)는 거울과 램프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18세기의 연상주의에서부터 칸트의 관념론으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즉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투영하거나 모방하는 신고전주의 시대의 시적 이상에서부터 창조적 상상력과 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빛을 수용하는 거울과는 달리, 빛을 투영하는 램프는 수용적이 아닌 활동적이며, 인식의 과정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정신의 이미 지임을 강조한다(Abrams *Mirror* 58). 아브라함스는 모방의 개념에서부터 표현의 개념으로 바뀐 것을 거울의 은유에서부터 램프의 은유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다.

하프는 시인에 대한 은유이고, 하프가 내는 소리는 시에 대한 은유이다.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진동과 밖으로 나가는 진동에 대해 하틀리가 설명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고찰』(*Observation on Man*)에서 하틀리는 진동이 어떻게 느낌을 전달하고 그 느낌이 어떻게 생각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한다. “골수의 미립자들의 진동으로 인해 느낌과 지적 인식이 수행된다”는 설명은 이러한 진동이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근육의 움직임 또한 진동을 통해서 기능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소리가 현을 따라 전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동은 운동 신경, 즉 근육으로 이어진 신경을 따라 내려간다”(Hartley 86, 88). 이러한 진동은 두 종류, 즉 “자동적”(automatic)인 근육의 움직임과 “자발적”(voluntary)인 근육의 움직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심장 박동, 호흡 등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말하기와 쓰기, 악기 연주 등과 같이 학습되고 난 이후에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105-6).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말하는 행동은 자동적 행동이 된다. 하틀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 어떠한 노력 없이 느낌과 생각,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자동적 움직임은 “정신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04). 에올리안 하프는 진동을 받고 전달하는 기계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인간고찰』에서 하틀리가 밝힌 바처럼, 소리는 신경 자극의 모델이 되고, 말을 하는 육체는 운동 신경의 진동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인간이 받아들인 진동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즉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동이 있다. 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하틀리는 쓰여진 단어와는 달리 인간의 목소리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쓰여진 시가 우리들 눈 위로 지나갈 때보다도, 잘 읽혀진 시는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투영되는 감정과 열정의 모방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인간고찰』 431)

하틀리처럼 코올리지는 쓰여진 시의 형태보다는 시의 구술성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였다(Ong 72). 즉 시는 말하는 육체를 담은 예술이다. 『문학평전』에서 코올리지는 시의 출판과 암송을 구분하여, 시의 암송의 경우에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대의 특성과 그가 관객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느낌의 공감”을 역설하였다. 이것은 “표정과 어조를 통해 청취자들의 열성을 자극해야하는 암송자가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전한다는 “동물자기력설”(animal magnetism)”(Coleridge *Biographia* 476-7)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물자기력설은 낭만주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설에 따르면, 자력을 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메스머(Franz Mesmer)에 의해서 18세기에 확립된 이 학설은 생명력에 아주 중요한 전기 에너지가 인간의 두뇌에서부터 팔다리까지 인간의 의지가 신경을 통해 전달됨을 강조한다(Fulford 68). 말하는 시인을 자성(磁性)을 띤 사람으로 간주한 것은 청중들의 신경, 즉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렬한 힘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에게 최면술사의 존재란 독자들에게 시인의 존재와 흡사하다. 18세기와 19세기 문학 비평가들은 반향과 진동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시인의 정신과 부합하는 공감을 통해 독자의 느낌은 시인의 느낌과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에 서로 울림이 없게 된다(McCarthy 33).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울림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즉 크게 낭송되는 시가 시인과 청중들의 신체에 보다 큰 감동을 전해 주는 이유인 것이다.

하틀리와 메스머는 에테르(ether)가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의 신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뉴턴의 가정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에테르는 하나의 형체가 다른 형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체 구실을 한다(Fulford 63). 뉴턴의 원리에 기반을 두었던 하틀리는 울림을 전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분자들로 구성된 에테르의 미세한 분자들이 신경 바깥쪽의 움직임들로 인해 진동이 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야성적 충동들이 흘러들어가는 텅 빈 신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혹은 이론과는 다르다. 하틀리는 통 모양의 신경을 따라 흘러가는 충동의 흐름을 전제로 한 울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두뇌의 수질에서 좀 더 많은 울림이 야기됨으로써 울림이 전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틀리는 울림이란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을 따라 전달되는 것으로,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Hartley 20).

메스머는 약기의 현과 곡조가 하나가 되어 공명하며 조화를 만들어내는 우주적 힘의 효과에 대해 밝히면서, 행성들이 소리와 울림을 통해 인간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19). 「에올리안 하프」에서는 소리와 빛에 대한 시인의 느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적 조화와 소통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어 그려지고 있다. 느낌은 생각과 사고로 이어지고, 자발적인 행위들은 자동적 혹은 무의식적 행위들로 이어진다. 하프의 현은 청각과 성대의 신경들을 통해 내부와 외부,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없애주고, 우주적 소통을 만들어낸다.

각자의 영혼인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신인
하나의 지적 미풍이 유연하게 그리고 광대하게
하프 위를 스쳐 지나가듯이,
기운찬 자연의 만물이 울리면서 사상이 된
다양하게 구성된 유기체 하프라면 어떠하겠는가?

And what if all of animated nature
 Be but organic harps diversely framed,
 That tremble into thought, as o'er them sweeps
 Plastic and vast, one intellectual breeze,
 At once the Soul of each, and God of All?(45-9)

하프의 공명(共鳴)적 특징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 위 시행들은 코올리지가 보여주는 범신론적 특징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하틀리의 종교관과도 부합된다: 감정이 생각이 되고 이후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정신이 물질적 관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경험은 인간을 영적인 상태로 인도한다. 이러한 자연의 신성한 특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인간은 평온함을 유지한다(Porter 357-8). 그 결과로 「에올리안 하프」에서 묘사된 것처럼, 영혼과 신이 이상적 조화 - 자아가 우주와 공감하며 진동 - 를 이루게 된다. 이렇듯 낭만주의 기간 동안에 신경의 울림/진동은 인간의 감각과 생각, 사고 그리고 시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III. 바람의 숭고성

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신경의 울림이란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코올리지 당대의 의사들은 고통 혹은 과도한 자극과 충격은 전율, 경련,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증세를 야기한다고 생각했다(Vickers 145-6). 따라서 울림을 전하는 ‘조화로운 하프’의 개념에 고통과 우울증의 개념 하프접목되게 된다. 「낙담: 송가」에서 코올리지는 에올리안 하프를 의인화시킨 후에, 바람하프예민한 자아에게 우월한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에올리안 하프」에서 하프는 마치 “연인에 절반정도 기댄 수줍은 프’너”울리5) 같다고 묘사된다. 「낙담: 송가」에서는 유쾌한 감각과 후 대신에, “후를 내지 않는/ 에올리안 하프 위로 슬퍼하며 스쳐가는/ 침체되고 흐느끼는 틈새 바람”(6-8)이 묘사된다. 이 바람은 하프의 현을 훑고 지나가며, 시인의 “무더진 고통”을 모방이라도 하듯 “침체된 흐느낌”을 쫓는다.

「낙담: 송가」는 “무더진 고통에 자극을 주어 고통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끔”(20) 하기 위해 폭풍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시인의 열망으로 끝을 맺는다. 왜 폭풍우가 자신에게 고통의 강도를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코올리지가 생각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운 감각과 울림에 대해 하틀리가 설명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리와 색깔만큼이나 “고통과 쾌락”은 울림의 원리와 연관이 깊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감각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틀리는 설명한다(Hartley 34). 그는 고통과 쾌락은 질적 차원이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울림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전해지는 쾌락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35). 즉 고통은 쾌락이

과도한 정도를 의미한다. 고통이란 생각과 환상, 느낌 그리고 시를 만들어 내는 감각이 강렬해 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고통이란 시적 창조성과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생긴 우울증의 상태에서 시인이 겪는 감각의 결핍을 막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 코울리지는 “단어와 한숨 혹은 눈물 속에서/ 자연스러운 분출구와 위안을 찾을 수 없는/ 숨 막히고 활력 없는, 냉정한 슬픔/ 어둡고 무시무시한 고통과 황량한 비통함”(「낙담: 송가」 21-4)을 겪는다. 『송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Sublime and Beautiful, and Other Pre-Revolutionary Writings*”)[이후에는 『송고탐구』로 표기함]에서 버크(Edmund Burke)는 하틀리처럼, “고통이 쾌락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더욱 강력하며,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Burke 164). 버크는 인간의 신체를 진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송고미는 혼잡한 신경 체계에 일종의 의학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 버크는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격렬한 울림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한하며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을 송고미와 연결시키면서, - 송고미의 궁극적 대상은 신이겠지만 - 천둥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 차원의 것들을 포함해서, 고통스러우며 끔찍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을 송고미에 포함시킨다. 인간이 이러한 송고미와 접하게 되면, 자신의 협소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위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후, 일종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는 끔찍한 전율을 경험하게 된다(231). 유쾌한 맛과 냄새, 과일과 꽃들의 훌륭한 색채, 새의 멜로디 등을 예로 들어 하틀리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상반되는 자연의 광대함은 인간에게 전율에 가까운 느낌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유쾌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자연에는 낭떠러지와 폭포, 눈 덮인 산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쾌락으로 전환되면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게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생각들을 확대시키고 활력을 얻게 된다. 자연의 장면들이 보여주는 장엄함과 신선함은 독자에게 놀람과 경이감이란 자극을 주고, 이전 정신 상태와 차후 정신 상태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쾌락을 증진시켜준다(Hartley 86-7).

「낙담: 송가」에 나오는 바람은 무형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송고미적 특징을 담고 있다. 하프에는 수동성, 즉 떠는 모습과 연상될 수 있는 굴복/ 복종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에 반해, 바람의 힘에는 송고미에 상응하는 “존경과 경이감”(165)이 들어있다.

밖에서 울부짖는 그대 바람이여,
별거벗은 바위산, 혹은 산, 호수, 시든 나무
혹은 나무꾼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소나무 숲,
혹은 오랫동안 마녀의 집이었던 외딴 집,
나는 그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악기란 생각이 든다.....
온갖 비극적 소리에 완벽한 그대 배우여!
미치도록 대답한 그대 위대한 시인이여!

Thou Wind, that ravest without,
Bare craig, or mountain-tairn, or blasted tree,
Or pine-grove wither woodman never clomb,
Or lonely house, long held the witches' home,
Methinks were fitter instruments for thee
Thou Actor, perfect in all tragic sounds!
Thou mighty Poet, e'en to frenzy bold! ("Dejection: An Ode" 99-109)

「에올리안 하프」에서는 하프가 바로 시인 그 자체였는데, 「낙담: 송가」에서는 바람이 음악가나 배우, 작가로 묘사된다. “시든 나무”나 혹은 “외딴 집”과 같은 불안정한 구조물들이 바람인 “그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도구”라고 묘사된다. 「에올리안 하프」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하프와는 정반대로, 활발한 모습의 바람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시인”이 된다. 수동적 모습에서부터 이러한 이미지로의 변모는 코울리지가 연상주의와 연관된 수동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낙담: 송가」에서 코울리지는 인간의 인식의 수용적 특징보다는 창조적 특징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문학평전』에서 코울리지는 정신 과정의 수동성에 관한 하틀리의 이론은 배제시켜왔음을 주장한다. 하틀리를 비롯하여 그를 추종하였던 자들은 인간의 의식은 “산들 바람과 하트의 평범한 결과인 선율”(『문학평전』 218)이라고 여겼다. 코울리지는 “조화라는 것이 상호 연관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상호 관련된 그 존재가 인식되는 것 아닌가?”(218)라는 질문을 던진다. 조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코울리지가 인간의 인식 방식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람으로 야기된 것이 ‘조화’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그 모든 것이 ‘소음’이나 다름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듣는 자가 청취하며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218-9).

코울리지는 우울증을 느끼면서, 자신이 창조적 정신력, 즉 “상상력을 구성하는 혼”(Abrams *The Mirror* 86)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낙담: 송가」의 초반부에서 시인은 하프를 위협하는 송고한 바람을 묘사하기 전에, 저 멀리 어딘가를 내다보면서 소원한 상태에 처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그린다.

너무나도 향기롭고 고요한 저녁 내내,
나는 서쪽 하늘과 특이한 황록색의 빗깔을
바라보고 있도다.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도다
- 아주 흐리멍덩한 눈으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보고 있도다,
보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를 느끼지는 못하네!

All this long eve, so balmy and serene,

Have I been gazing on the western sky,
And its peculiar tint of yellow green:
And still I gaze—and with how blank an eye! [...]
I see them all [clouds, stars, moon] so excellently fair,
I see, not feel how beautiful they are!(27-38)

여기에서 시인은 창조적 인식 능력을 잃게 된 것을 눈이 공허해진 것으로 설명한다. 선명한 색깔과 형태들로 가득한 외부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일로 여겨진다. 시인에게는 창조적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바람, 다시 말해서 공기의 격렬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제 시인에게는 표현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송고미가 절실히 필요하다. 「에올리안 하프」에서보다 「낙담: 송가」에 묘사된 바람은 시인이 흐리멍덩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더욱 강렬한 힘을 불어 넣어줄 대상이 된다. 이런 코올리지에게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바람 자체는 송고한 아름다움을 갖춘 대상인 것이다. 이 송고한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소리에는 갑작스럽고 크게 울리는 “다수의 외침” 뿐만 아니라, “낮게 떨리는”(123-4) 소리가 모두 포함된다.

쓰린 상처 입은 짓밟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추위에 떠난다
그러나 조용히 하라! 가장 심오한 침묵의 정지의 순간이 있다.
그리고 전진하는 무리와 같은 모든 소음과
신음과 몸서리치는 전율로 - 모든 것이 끝나고
그것은 덜 심오하며 덜 시끄러운 소리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With groans of trampled men, with smarting wounds—
At once they groan with pain, and shudder with the cold!
But hush! there is a pause of deepest silence!
And all that noise, as of a rushing crowd,
With groans, and tremulous shudderings—all is over—
It tells another tale, with sounds less deep and loud! (111-6)

이 소리들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리 자체의 구조, 음량과 높낮이, 리듬, 울림, 외침 등을 통해 소통된다. 다양한 형태들의 울림에는 송고한 아름다움의 효과가 들어 있다. 버크가 설명하였듯이, 귀가 소리를 들을 때는 귀의 다른 부분들, 특히 고막의 진동 현상이 있다(Burke 168). 빛도 진동한다고 주장한 버크는 음식에도 “혀의 신경 돌기들을 떨리게 하는 힘”(180)이 들어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소리를 빗대어 설명한다. 즉 소금도 “울림을 불어 넣는 힘”(180)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바람의 송고한 소리와 신경에 가해진 진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몸서리치는 전율”이라는 진동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버크에 따르면, 지나친 휴식과 같은 비활동성은 “끔찍한 발작,” 즉 “우울과 절망, 그리고 때로 자살”(「송고탐구」 164)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송고미란 신경과 근육 조직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버크의 말을 빌리자면, 낙담과 울적한 감정이 들 때, “인간의 신경은 적절한 정도로 흔들리면서 기능한다”(165). 신경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송고미에 담긴 치유적 특징이라면, 송고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율과 같은 울림의 특징은 악기의 현을 통한 은유에서처럼 인간의 정신 작용에 적용된다.

자신의 혼잡한 신경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코울리지는 승마와 아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시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송고미의 치유적 효과에 관심이 있었다. 질병이란 조율되지 못한 신경 체계가 그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의학적 사고방식들에 대해 코울리지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비커스(Neil Vickers)는 주장한다(Vickers 146-7). 당시의 많은 의사들은 승마와 도보, 알코올, 아편과 같은 방법들을 처방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유익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코울리지가 자신의 통풍으로 인해 처음 복용했던 아편과 더불어 지는 강력한 자극제로 여겼던 것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송고미였다(31). 인간의 신경이 “송고한 사건에 대해 반응하면서, 연민과 공포로 인해 떨게 되는” 상태가 현악기의 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설명한 마일즈는 감수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난의 여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1790년에는 누군가가 신경이 예민하다는 말 자체는 일종의 칭찬의 의미였지만, 1810년쯤에는 누군가가 까다로울 정도로 신경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Miles 49-50). 민감한 신경, 다시 말해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은 병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버크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 상태가 신체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고통이 치유적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버크에 대해 연구한 사라피아노스(Aris Sarafianos)는 18세기가 끝날 무렵에 고통이 회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버크가 제안한 신경 흥분 이론은 자극을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치유적 특징을 옹호한다”(Sarafianos 75). 유기체는 그 자체 내에 스스로가 다룰 수 있을 정도만큼의 흥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외부 세계의 흥분적 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이 능력은 때로 필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은 이러한 흥분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도한 결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67-8). 생명력을 일깨우고자 했던 코울리지의 의사인 베도스를 포함하여 당시 의학자들은 상기의 견해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코울리지는 “자신을 흥분시키는 힘의 본질을 단련시킨 사람이 베도스라고 생각했다”(Vickers 49). 베도스를 멘토로 여겼던 데이비(Humphrey Davy)는 빛과 결합된 산소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비는 코울리지에게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그 효과가 자극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코울리지는 이 실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첫 번째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꽤나 유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고, 세 번째는 황홀경의 느

낌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Beer 200).

IV. 맺음말

하틀리의 「인간고찰」에서 언급된 “울림의 원리”는 인간이 느끼는 감흥이 두뇌의 울림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흥이란 생각과 느낌, 기억과 사고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사고들이 결합되는 하나의 과정인 연상을 통해서 감흥으로부터 복잡한 생각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연상의 원리이다. 하틀리는 「인간고찰」에서 이러한 연상주의와 뉴턴의 물리학을 참고로하여 정신 과정이 물질세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했다. 연상주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켰던 로크(Locke)에게 관심이 많았던 하틀리는 두뇌의 신경과 그 움직임에 관한 통찰을 통해서 육체적/물리적 기반을 토대로 한 정신 철학에 접근하였던 것이다(Richardson *British Romanticism* 349-50).

「에올리안 하프」에서는 조화로운 울림이 묘사된 것에 반해, 「낙담: 송가」에서는 날카로운 소음이 묘사된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의약계에서 신경의 울림을 고통과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자, 문학적 묘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공명 현상의 의미가 감수성과 조화를 의미했던 것에서부터 전율과 발작, 고통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격렬한 울림이 오히려 강렬하면서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었다. 즉 코울리지 당시의 사람들은 울림이라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즉 치유력을 갖춘 자극이 될 수 있다고도 여겼다. 코울리지는 이러한 울림을 에올리안 하프라는 악기를 통해 설명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

에올리안 하프는 사람이 아닌 바람에 의해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호킨스(John Hawkins)는 “하프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혹은 하프가 어떠한 종류의 악기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악기로써와 공기압을 이용하는 악기라는 두 가지 모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100)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낙담: 송가」에서 무질서한 힘을 보여주었던 바람은 악기의 현이 지닌 조화의 기능을 압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산들 바람이 온화한 즐거움과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을 보여준 「에올리안 하프」에서와는 달리, 「낙담: 송가」에 나오는 바람의 소리는 고뇌에서 쾌락까지의 전 범위를 망라하며 고통과 더불어 열정적 느낌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악기는 「낙담: 송가」의 “고문으로 늘어진 고뇌의/ 비명소리” (97-8)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울한 명상에 빠진 시인의 정신에 위로를 전해주는 것으로도 묘사되었다. 「낙담: 송가」에서는 에올리안 하프의 효과가 고통과 치료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에올리안 하프의 치유적 특질은 무질서하며 정형이 갖추어지지 않은 바람의 진동을 규칙적 간격이 있는 소리로 전환시켜 무질서와 시끄러움으로부터 조화와 차분함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람의 숭고성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현의 조화로운 힘을 꺾어 버린다면, 오히려 해로운 효과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들어 있었다.

낭만주의 작품에서 시적 모델과 창조적 자아의 모델이 되었던 에올리안 하프는 외부 자연과 내적 자아의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도구였다. 현악기이면서도 관악기인 에올리안 하프는 인간의 감정이 외부 세계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였다. 시를 창조해내는 작업과 연결 지어 볼 때, 이 악기는 두뇌의 진동과 울림의 모델이 될 만했던 것이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압도적이며 강력한 바람과 같은 자극은 코울리지에게 한편으로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쾌락을 경험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의 숭고한 힘은 그로 하여금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의 자극제 역할이 되었으며 그의 시 작업에 영감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삶과 의식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렇게 영감을 받은 생각과 생산적 상상력, 열정적 느낌과 연관된 낭만주의의 정신이란 물질세계를 영적으로 초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코울리지는 보여주었던 것이다. 정신 이해의 토대가 되었던 물질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의 주요한 상징물로서 코울리지는 에올리안 하프를 그려내었던 것이다.

인 용 문 헌

- Abrams, M. H. *The Correspondent Breeze: Essays on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4.
- _____.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Lond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1953.
- Beer, John. *Coleridge's Poetic Intelligence*.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Press, 1977.
- Burke, Edmund.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Sublime and Beautiful, and Other Pre-Revolutionary Writings*. London: Penguin, 1998.
- Clarke, Edwin. "The Doctrine of the Hollow Nerve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Medicine, Science, and Culture*. Ed. Lloyd Stevenson and Robert Multhauf.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P, 1968. 123-141.
- Coleridge, Samuel Taylor. "Biographia Literaria." *Samuel Taylor Coleridge: The Major Works*. Ed. H. J. Jackson. Oxford: Oxford UP, 1985. 155-482.
- _____. *Collected Letters of Samuel Taylor Coleridge*. vol. 1: 1785-1800. Ed. Earl Leslie Griggs. Oxford: Clarendon Press, 1956.
- Crary, Jonathan. *Techniques of the Observer: On Vision and Modern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IT, 1992.
- Dekker, George. *Coleridge and the Literature of Sensibility*. London: Vision, 1978.
- Fulford, Tim. "Conducting the Vital Fluid: The Politics and Poetics of Mesmerism in the 1790s." *Studies in Romanticism* 43.1 (2004): 57-78.
- Gouk, Penelope. *Musical Healing in Cultural Contexts*. Sydney: Ashgate, 2000.
- Hankins, Thomas, and Robert Silverman. "The Aeolian Harp and the Romantic Quest of Nature." *Instruments and the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95. 86-112.
- Hartley, David. *Observations on Man, His Frame, His Duty, and His Expectations*. Vol. 1. London: Joseph Johnson, 1791. Repr. *Observations on Man*. Vol. 1. Poole: Woodstock Books, 1998.

- Hankins, Thomas, and Robert Silverman. "The Aeolian Harp and the Romantic Quest of Nature." *Instruments and the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95. 86–112.
- Jütte, Robert. *A History of the Senses, from Antiquity to Cyberspace*. Trans. James Lynn. Cambridge: Polity, 2005.
- McCarthy, Thomas. *Relationships of Sympathy: The Writer and the Reader in British Romanticism*. Aldershot: Scolar Press, 1997.
- McFarland, Thomas. *Coleridge and the Pantheist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Miles, Robert. *Anne Radcliffe: The Great Enchantress*. Manchester: Manchester UP, 1995.
- Moore, Keith L. and T.V.N. Persaud. *The Developing Human: Clinically Oriented Embry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1993.
- Ong, Walter. *The Presence of the Word: Some Prolegomena for Religious and Cultural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7.
- Porter, Roy. *Flesh in the Age of Reason*. London: Penguin, 2004.
- Priestley, Josep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on Different Kinds of Air*. Vol. 1. London, 1774.
- _____.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Discoveries Relating to Vision, Light and Colours*. Vol. 2. London: J. Johnson, 1772.
- Richardson, Alan. *British Romanticism and the Science of the Mind*. Cambridge: Cambridge UP, 2001.
- _____. "Romanticism and the Body." *Literature Compass* 1 (2004): 1–14.
- Rylance, Rick. *Victorian Psychology and British Culture: 1850–1880*. Oxford: Oxford UP, 2000.
- Sarafianos, Aris. "Pain, Labor, and the Sublime: Medical Gymnastics and Burke's Aesthetics." *Representations* 91 (Summer 2005): 58–83.
- Vickers, Neil. *Coleridge and the Doctors, 1795–1806*. Oxford: Clarendon Press, 2004.
- Wheeler, Katherine. *The Creative Mind in Coleridge's Poetry*. London: Heinemann, 1981.

Abstract

Aesthetics of Resonance: Coleridge's "Rhythm in Thought"

Byeonghoon Hwang

This article demonstrates how Aeolian harp can be used as a literary model in the nineteenth century, which is usefu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nge of the physical basis of human response and sensitivity. According to Hartley's argument for the vibrations in *Observations on Man*, the harp can be a metaphor for Coleridge's poetic mind. The sound of the harp can be a metaphor for his poetry. This research will elaborate upon the materialistic concepts about his response to its vibrations, focusing on the poems such as "The Aeolian Harp" and "Dejection: An Ode."

A wind has important functions in both poems. In "The Aeolian Harp," the gentle breeze guides him into mild gratification and peaceful meditation. The harp as an image soothing his sad and thoughtful state of mind reflects how his body vibrates and functions. In "Dejection: An Ode," a noisy wind arouses his passionate feelings such as agony and delight. Here he emphasizes the disorderly vibrations of the wind providing the sublime kinds of disturbance. The sublime is associated with his pain and consolation and can be of much help to the understanding of why he wants the strong wind to reduce his distress.

The harp can be a model for stimulating his mind out of melancholy and inspiring his poetic composition. This instrument was an invention for embo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mind and nature. Therefore, the crucial point the harp image conveys is that it can be one of the main symbols of the Romantic culture which reflects human appreciation of the materiality of mind in relation to the external nature.

Key words: S. T. Coleridge, Aeolian Harp, Dejection, Sublime, vibration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 에올리안 하프, 낙담, 숭고미, 울림

논문접수일: 2012. 04. 17

심사완료일: 2012. 06. 09

게재확정일: 2012. 06. 15

이름: 황병훈

소속: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주소: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이메일: byehoon7557@kmu.ac.kr